

『산해경(山海經)』의 독법으로 다시 읽는, 영화 <헤어질 결심>^{*}

유강하^{**}

< 목 차 >

1. 서론
2. 산경(山經)
3. 해경(海經)
4. 결론을 대신하며: 반복과 변주를 통한 경전의 재해석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을 고대 중국의 경전인 『산해경(山海經)』의 독법에 따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산해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주인공인 서래가 중국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 영화가 『산해경』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화 <헤어질 결심>을 『산해경』의 구성인 「산경(山經)」과 「해경(海經)」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한편, 『산해경』의 특징적 요소인 지리서적 성격과 신화적 함의를 중심으로 영화를 탐색하였다.

이 영화에서 『산해경』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산해경』의 형식과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산해경』 「해경」이 바다 바깥쪽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서로의 바깥쪽에 있는 해준과 중국 여성 서래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 영화에 사용된 음악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과 노래 <안개>, 서래가 보여주는 특유의 화법과 ‘반복적, 중첩적’ 말하기 방식, 이미지 등은 경전(經典)이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주를 통해 그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산해경』의 관점으로 서래와 해준의 이야기를 보자면, 안개에 갇힌 채 서로를 찾아 길을 만든 사랑의 지리서적이며, 신화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사랑을 완성한 사랑의 경전이다.

【주제어】 산해경(山海經), 헤어질 결심, 산경, 해경, 경전(經典), 지리(地理), 신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628).

** 강원대학교 인문치료학과, 부교수

1. 서론

박찬욱 감독의 열 번째 장편영화 <헤어질 결심>(2022)은 제75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유명 영화제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¹⁾ 박찬욱 감독의 영화 가운데서도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영화로 손꼽히며, 박찬욱 감독 영화가 지닌 특유의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확장성이 높은 영화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영화의 난해성은 다양한 해석의 아포리아를 형성한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국내만 하더라도 수십 편의 연구논문이 출판되었고, 비평가와 전문가들의 논평까지 더해지면서 이 영화는 한층 풍부한 해석을 갖게 되었다. 박찬욱 감독은 직접 <헤어질 결심>을 평가하면서 행간에 감추어진 의미가 풍부한 영화라고 말한 바 있다.²⁾ 이 영화는 러시아 형식주의나 행위소 모델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³⁾ 융(Carl Gustav Jung)이나 라캉(Jacques Lacan) 이론으로 분석되기도 하며,⁴⁾ 관계, 사랑, 섹슈얼리티, 디아스포라, 색채 등⁵⁾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해석 가운데, 이 영화를 중국 또는 중국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

- 1) 영화 <헤어질 결심>은 제75회 칸영화제 감독상 외에도 다수의 수상 실적을 갖고 있다.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제31회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 등; 제4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등; 제32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등; 제43회 보스턴영화비평가협회상 편집상; 제35회 시카고 영화비평가협회상 외국어영화상 등.
- 2) “[Q] 『헤어질 결심 각본』의 흥행 어떻게 보셨나요?” [박찬욱] 이 영화는 제 작품 중에서도 행간에 감추어진 뉘앙스 같은 게 좀 풍부한, 그런 것을 더 중시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단하 하나 하나를 음이한다는 것(……) “『월간 윌터뷰, 영화 감독 박찬욱,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검색일: 2024/10/16)(미출, 인용자 강조) <https://www.youtube.com/watch?v=zoGEI8fpSnQ>”
- 3) 홍상우·문준일은 이 영화를 “낮설게 하기, 그로테스크와 언어유희”의 요소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하게 러시아 형식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홍상우·문준일, 「러시아 형식주의와 영화 <헤어질 결심>」, 『세계문화비교연구』 84, 2023, 154-164쪽; 이희승, 「영화 <헤어질 결심>의 서사구조 분석: 진실한 사랑 혹은 사랑의 진실」, 『예술교육연구』 22(2), 2024, 1-12쪽.
- 4) 박진,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원형적 상징성과 그 의미-용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한국언어문화』 80, 2023, 237-261쪽; 이미옥·안상혁,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시각적 표상 연구 -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1, 2022, 133-143쪽.
- 5) 한귀은, 「<헤어질 결심>에 내재된 사랑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28(3), 2022, 353-387쪽; 한영현, 「시선과 언어로 매개되는 로맨스의 새로운 상상력: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을 중심으로」, 『문화과영상』 24(3), 2023, 755-779쪽; 오연, 「헤어질 결심으로 환대를 해체하기」, 『영화연구』 96, 2023, 89-118쪽.

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⁶⁾ 이는 여주인공인 서래가 중국인 여성이라는 점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고대 중국의 경전인 『산해경(山海經)』이 작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집필한 정서경, 박찬욱 감독도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산해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⁷⁾ 이 영화를 『산해경』과의 관련성에서 해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헤어질 결심>을 『산해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대표적 연구로는 이석구의 논문, 「산과 바다를 걷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2023)을 들 수 있다. 이석구는 『산해경』을 <헤어질 결심>의 서사적 기원이자 서사의 근원적 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해경』에서 추출된 산(山)과 바다(海)의 이미지 분석에 집중하여 이를 이원론적 요소로 바라보고,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안개의 의미 등을 매우 촘촘하게 분석하였다.⁸⁾ 주장(Zhu Jing)도 산과 물의 이분법에 큰 의미를 두고 분석했는데,⁹⁾ 실제로 이 영화에서 산과 바다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산’과 ‘물’의 요소보다는 이 영화 속에서 『산해경』이 갖는 역할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작가와의 인터뷰와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산해경』은 이 영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대 중국의 경전인 『산해경』은 성서(成書) 시기와 책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분분한 책이다.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유파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¹⁰⁾

6) 진성희, 「한국 영화의 중국인 여성-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성 재현과 윤리」, 『중국어문논역총간』 52, 2023; 이석구, 「산과 바다를 걷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 『중국소설논총』 69, 2023, 1-22쪽; 민경옥, 「중화권 영화에 대한 내셔널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본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 『중어중문학』 93, 2023, 55-96쪽.

7) “산해경처럼 생각해 보자면(……).”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 박찬욱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r3XpwacurLQ>)

8) 이석구, 「산과 바다를 걷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 『중국소설논총』 69, 5쪽; 13-15쪽.

이석구에 따르면 산과 바다는 다음과 같은 상징성과 연결성을 가진다. ‘산-남성(해준)-높음-밝음’, ‘바다-여성(서래)-낮음-어둠’. 이 도식은 영화의 포스터를 통해서도 매우 잘 드러난다. 이석구, 위의 논문, 14쪽.

9) 성창규,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대립적 이분법과 아이러니와 번역」, 『동서비교문화저널』 63, 2023, 201-225쪽; ZHU JING, Mountain and Sea: Gender Dilemma in Park Chan-wook's Decision to Leave (2022). 『아시아영화연구』 16(2), 2023, 331-368쪽.

10) “이 책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이라 할 수 있는 작자, 쓰여진 시기, 그리고 성격

‘산(山)과 물(海)의 경전’이라는 단순한 이름을 가진 오래된 이 문헌은 지리서인지, 신화서인지, 무서(巫書)인지 지금까지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 책은 영화 <헤어질 결심> 전체를 관통한다.

『산해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항들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을 뿐, 이 사항들을 ‘설명’ 하려는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¹¹⁾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다.

다시 서쪽으로 220리를 가면 조서동혈산(鳥鼠同穴山)이라는 곳인데 산 위에는 백호(白虎)와 백옥(白玉)이 많다. 위수(渭水)가 여기에서 나와 동쪽 황하로 흘러간다. 그 속에는 소어(鱸魚)가 많은데 모습은 전어(鱸魚) 같고 움직이면 그 고을에 병란이 크게 일어난다. 함수(濫水)가 그 서쪽에서 나와 서쪽 한수(漢水)로 흘러간다. 이곳에는 여비어(口鮐魚)가 많은데 뒤집어놓은 뱀머리처럼 생겼고, 새의 머리에 물고기의 날개와 꼬리를 갖고 있다. 소리는 경석(磬石) 같고 주옥(珠玉)을 낳는다. (『산해경(山海經)』 「서산경(西山經)」)¹²⁾

『산해경』은 우선 명확한 방식으로 지리를 설명하고, 이어 그곳에 사는 신(神)이나 동·식물, 광물을 소개하며, 동식물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 서술에는 현실에는 없을 법한 동식물들이 등장하는데, 각 서술 사이의 친절한 설명은 끝내 누락된 채, 각각의 사항들은 끝까지 단조로움을 유지한다. 비현실적인 동식물과 ‘병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서로 뒤섞여 이질적이고 기이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산해경』의 서술 방식은 <헤어질 결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¹³⁾

이같은 기술 방식 때문에 이 책은 오랫동안 지리서로 파악되어 오곤 했다. 그

과 저술동기 등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못”한 상황이며, “『산해경』이 어떤 성질을 가진 책인가에 관해서도 전통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서경호,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5-6쪽.

11) 서경호, 『山海經研究』, 6쪽.

12) “又西二百二十里，曰鳥鼠同穴之山，其上多白虎、白玉。渭水出焉，而東流注于河。其中多鱸魚，其狀如鱸魚，動則其邑有大兵。濫水出于其西，西流注于漢水。多口鮐之魚，其狀如覆鉢。鳥首而魚翼魚尾，音如磬石之磬，是生珠玉。” 이 논문의 『산해경』 번역문은 다음의 번역본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재서 옮김, 『산해경』, 민음사, 1999, 106-107쪽.

13) “[서래] (중국어로)…… 다시 남쪽으로 삼백 리를 가면 호미산이라는 곳인데, 이 산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땐 길어 다니다가 사람이 알아채면 그대로 주저앉아 평범한 산이 된다.” “다시 동쪽으로 이백오십 리를 가면 기릅산이 있는데(……). 이 산의 봉우리는 깊이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사는 구더기는 길이가 백 년 자란 소나무 같고(……)”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을유문화사, 2022, 64쪽; 101-103쪽.

러나 수식어 없이 백과사전식으로 무심하게 나열되는 신(神)과 동식물, 광물들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궁극증을 자극하였고, 서술되는 이질적인 정보들은 이 책의 성격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신화서(神話書)나 무서(巫書), 약학서(藥學書) 등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¹⁴⁾ 이러한 현상은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해석과 분석에서도 반복된다. 이 영화는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젠더, 섹체,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고대 중국의 『산해경』이 보였던 학술적 지형과 유사하며, 매끄러운 구성보다는 대사와 화면 사이의 분절감을 만들어 내는 영화의 진행 방식과도 닮아있다.¹⁵⁾

“이 영화가 『산해경』을 차용했다는 것은 개봉된 이후 출판된 두 권의 책(스토리북, 각본집)의 표지에도 드러난다. 스토리북의 표지는 송서래 방의 벽지인데, 산과 바다가 반복되는 그야말로 ‘산해(山海)’ 경이다. <그림 1> 영화 각본집의 표지는 무수한 ‘길’이 있는 사이로 발자국처럼 글이 찍힌 지도이다. 각본집 표지의 지도는 산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바다 같다. 한 마리의 거대한 해파리가 유영하는 바다처럼 보이고, 산과 물은 합쳐져서 기이한 지도를 만들어 낸다. <그림 2>

『산해경』은 현실적인 지리적 감각을 요구하면서도, 매우 신화적인 해석을 요청하는데, 영화 <헤어질 결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해경』과 <헤어질 결심>의 구성에서도 일종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산해경』은 「산경(山經)」에서 시작하여 「해경(海經)」으로 끝나는데, 이 영화도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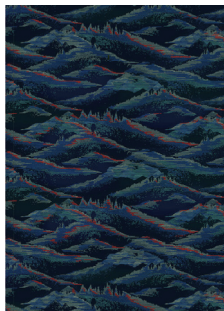
14) 서경호는 『산해경』이 예문지(藝文志)와 경적지(經籍志)에서 “사부(史部) 지리류(地理類)”로 구분된 것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기록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한 뒤, 청대(清代)에 이르러, “자부(子部) 소설가류(小說家類)”로 분류된 사실을 통해 이 책을 이해하는 인식의 폭이 다채로워졌음을 설명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을 다원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광범위한 사물이 백과사전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특히 초현실적인 동식물과 신화 및 전설이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산해경』은 어떤 학술적인 유포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전통시기에나 현대에 들어서서도 매우 유별난 책”으로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다. 서경호, 『山海經研究』, 5-7쪽.

李豐楙는 『산해경』을 신화적 성격이 농후한 문헌으로 파악한다(『山海經-神話의故郷』, 時報文化, 2012). 정재서는 ‘신화서’보다는 중국의 사회, 역사, 지리, 민속, 종교 등을 넘나드는 책으로서, “낭만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의 문학, 예술적 실재를 가능케 했던 정신적 원천”이라고 설명한다.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1999, 11쪽. “서문”

15) “[박찬욱] 이 영화는 (……)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생략과 비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차 진행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황이 하나로 엮이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월간 얼터뷰, 영화 감독 박찬욱,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검색일: 2024/10/16)(밑줄, 인용자 강조) <https://www.youtube.com/watch?v=zoGEI8fpSnQ>

한 남성이 산에서 죽으면서 시작되고(「산경」), 한 여성이 바다에서 죽으면서 영화가 끝난다(「해경」).”¹⁶⁾

<그림 1>



<그림 2>



정서경 작가도 이 영화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1부의 배경은 산, 2부의 배경은 바다라고 언급하는데,¹⁷⁾ 작가의 말을 따르자면, 이 영화는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낮은 바다까지 이동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¹⁸⁾ 특히, 마지막 바다는 산과 물이 동시에 구현된 장소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¹⁹⁾ 영화 속에서 산과 바다가 모호하게 합쳐지고,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겹쳐지는 공간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시에 신화적이다. <헤어질 결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인공인 장해준과 송서래의 서사에 집중하고자 하며, 이 영화를 「산경(山經)」과 「해경(海經)」이라는 『산해경』의 구도에 따라 분석하되 『산해경』을 설명하려는 주요한 방식인 ‘지리서’와 ‘신화(서)’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16) 「모호하고 선명한 사랑의 지리, 헤어질 결심」(유강하, 『강원도민일보』(2023/01/27)[검색일: 2024/10/16]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232>)
 17) 정서경 작가도 이 작품을 제1부 ‘산’, 제2부 ‘바다’로 나누어 구성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작품에선 ‘산’에 해당하는 1부가 끝날 때 해준이 했던 말을 ‘바다’가 배경인 2부에서 ‘사랑해’라는 의미로 바꾸는 게 목표였다.” 「‘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 “‘헤어질 결심’은 100% 관객에게 가닿았다.” 『씨네21』(2022/7/7). [검색일: 2024/11/29]] 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0489
 18)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 박찬욱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r3XpwacurLQ>)
 19) 본 논문의 [그림 5], [그림 6] 참조.

2. 산경(山經)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산에서 죽으면서 시작한다. 각본집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한다.

검은 화면에 ‘山’과 ‘산’이 동시에 필기체로 적힌다.²⁰⁾

‘산(山)’은 영화의 1부에 해당하는 「산경(山經)」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된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깔끔한 성격의 남성 기도수는 비금봉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했다. 딸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아내 송서래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말한다.

산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²¹⁾

서래는 중국에서 밀입국해서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으로서, 이질적인 존재이다. 서래가 가진 이질성은 ‘외국인’, ‘그런 세계에서 온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작가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²⁾ 서래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서래가 보여주는 ‘마침내’, ‘단일한’과 같은 특유의 화법인데, 이는 『산해경』에서 현실적 지리 공간에 무심하게 놓인 환상성과 이질성을 다시 환기한다.²³⁾

몇 년 전 불법 입국하려던 중국인들 가운데 송서래만 남게 된 이유에 대해, 그녀는 ‘만주 조선해방군 계봉석(桂奉石)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²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서래가 갖고 있던 낡은 책 『산해경』이다.<그림 3>

20)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7쪽.

21)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4쪽; 19쪽.

22) “이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서래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사랑이나 돌봄의 의미는 한국인들과 다르지 않을까? (……) 서래는 그런 세계에서 온 인물이다.” 「『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 “헤어질 결심”은 100% 관객에게 가닿았다.」 『씨네21』(2022/7/7). [검색일: 2024/11/29]

23) 『산해경』에 나오는 동식물들, 사람들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질성을 보인다. 매우 현실적인 지리가 설명된 뒤에, 현실에는 없을 법한 하이브리드의 동식물이 소개되고, 이후 홍수, 전쟁 등 매우 현실적인 현상들이 나열된다.

24) “[서래] 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요. (많이 해본 말인 듯 유난히 또박또박) 제 외조부는 만주 조선해방군의 계봉석입니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43쪽.

평소 숨씨 좋은 간병인으로 일했던 서래는²⁵⁾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녹색 표지의 공책을 낭독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는데, 이 책도 『산해경』이다.²⁶⁾ <그림 4> 『산해경』은 서래를 한국까지 이끌고, 삶을 기록한 살아있는 책인 셈이다.

<그림 3>



<그림 4>



서래가 살해용의자로 의심받는 가운데 그녀를 추궁하는 해준 앞에서 서래가 회상하는 장면은 이 영화 속에서 『산해경』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래가 『산해경』을 쓰는 방식은 원래의 『산해경』의 필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서래] (중국어로)…… 다시 남쪽으로 삼백 리를 가면 호미산이라는 곳인데, 이 산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땐 걸어 다니다가 사람이 알아채면 그대로 주저앉아 평범한 산이 된다.

서래 손에 들린 책, 몇 십 년 묵은 종이에, 붓으로 직접 쓴 제목 - 『山海經』, 그 아래로 ‘桂棹石’

[서래] 외할아버지가 중국의 산해경을 필사했는데, 뒷부분은 자기가 막 지어 냈어요.

[서래 엄마] (중국어로) 여차피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이어서 쓴 책에 한 명쯤 더 붙인들 뭐가 대수냐고 하셨어. 호미산은 한국에 네 할아버지 고향의 산인데 그분 거야. 거기 가, 네 산에. 나부터 죽이고.²⁷⁾(밀줄, 인용자 강조)

25)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간병인인가 손녀딸인가. 간호사 출신이라 주사도 놔 줄 수 있고 저희 업체 에이스죠, 에이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29쪽.

26) “풀짝 침대에 올라앉아 녹색 표지의 공책을 펴고 낭독하는 서래. (……) 할머니가 잠이 들자 낭독을 멈추고 숨소리를 확인하는 서래. (……)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식탁에 가서 그 책과 녹색 공책을 나란히 펼쳐 놓고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31-32쪽.

“어차피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이어서 쓴 책에 한 명쯤 더 붙인들 뭐가 대수냐”는 서래 엄마의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덧붙여지며 완성된 『산해경』이라는 경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결국 서래를 한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리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산해경』에 기록된 서래 외할아버지의 땅인 호미산은, 적어도 서래에게 분명한 방향을 안내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경전 집필자 혹은 참여자로서의 서래다.

꼬덕이는 해준, 계봉석 필사본 『산해경』을 펼쳐 본다. 멋들어진 국한문 혼용체 세로쓰기. 녹색 표지의 공책들도 펼치자 서래가 한글로만 정성껏 눌러쓴 가로쓰기 문장들이 나온다.

[서래] 이걸로 한국말 공부 시작했어요. 나도 막 지어내고. 28)

그녀는 “이걸로 한국말 공부 시작했어요. 나도 막 지어내고”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산해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손에서 완성된 경전이다. 29) 서래가 글을 읽고 다시 ‘글을 지어내’ 경전에 산입하는 행위는 그녀에게 새로운 경전 집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기도수의 사망 사건이 자살로 종결된 이후, 해준과 서래의 사이는 가까워진다. 그러다 서래가 돌보던 이해동 할머니를 해준이 대신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서래는 “제 집 식탁에서 녹색 공책 가져가 읽어 드려요, 그거 좋아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해준은 녹색 공책, 『산해경』을 챙겨 할머니를 찾아간다. 그 녹색 공책 속에서 해준은 살해 증거를 발견한다.

-이해동 할머니에게 녹색 표지의 서래 공책을 읽어주는 해준

“다시 동쪽으로 이백오십 리를 가면 기름산이 있는데 …… 이 산의 봉우리는 깊이가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사는 구더기는 길이가 백 년 자란 소나무 같고 뱃바닥에서 끈적끈적한 것이 나와 미끄러지지 않고 산을 오른다. 주름이 천 개 잡힌 흰 몸은 앞뒤를 분간하기 힘드나 사람들은

27)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64-65쪽.

28)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66쪽.

29) 그간 이 책의 성서(成書) 시기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주장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 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저술되었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20세기의 학자인 육간여(陸侃如)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육조시기(六朝時期) 초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저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서경호, 『山海經研究』, 68쪽.

긴 대롱을 내미는 주둥이를 보고 어느 쪽으로 달아날지 정한다. 구더기가 사람을 만나면 기다란 몸으로 휘감고 대롱을 꽂아 피와 골을 빨아먹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 벌레가 떨어져 죽으면 터진 머리에서 이만 마리 황금색 파리 떼가 날아올라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³⁰⁾

『산해경』이 여러 사람의 손에서 완성된 것처럼, 서래도 원래의 『산해경』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 덧붙였는데, 그녀가 『산해경』에 새로 삽입한 문장들은 마치 일기처럼 자백처럼, 모호하지만 선명하다. ‘백 년 자란 소나무같은 길이’에 ‘사람을 만나면 기다란 몸으로 휘감고 대롱을 꽂아 피와 골을 빨아 먹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하이브리드적 성격의 동물은 깔끔하면서도 폭력적이었던 기도수를 환기한다.

소나무, 구더기, 주름, 벌레, 파리 등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들이지만, 각각의 요소가 기이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이질감과 환상성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서술은 평범하고 현실적인 요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기이한 환상성을 획득하는 『산해경』의 기술 방식과도 일치한다.³¹⁾

“그 벌레가 떨어져 죽으면 터진 머리에서 이만 마리 황금색 파리떼가 날아올라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무심한 기록, 서래에 의해 다시 쓰인 경전은 뚜렷한 흔적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뒤를 분간하기 힘’ 들지만 ‘머리가 터진’ ‘구더기(벌레)’는 매우 기이하고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두부(頭部) 열상(裂傷)으로 사망한 나쁜 남편이었던 기도수의 죽음을 그대로 묘사한 생생한 표현이기도 하다.³²⁾ 그 죽음은 파괴적이지만, 해방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서래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황금색 파리 떼로 입힐

30)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01-107쪽.

31) 『산해경』의 많은 동식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형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다시 북쪽으로 350리를 가면, …… 어떤 짐승이 있는데 양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 눈은 거드랑이 아래에 있고, 호랑이 이빨에 사람 손톱을 갖고 있으며, 그 소리는 어린아이(嬰兒)와 같다. 이름이 포효(狍鴞)인데, 사람을 먹는다. (又北三百五十里, …… 有獸焉, 其狀如羊身人面, 其目在腋下, 虎齒人爪, 其音如嬰兒, 名曰狍鴞, 是食人.)”(『山海經』「北山經」) 정제서 옮김, 『산해경』, 민음사, 1999, 123쪽.

위의 예시는 양의 몸에 사람의 얼굴, 호랑이 이빨에 어린아이 소리,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동물 포효에 대한 설명이다. 완벽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의 조합이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기이함과 이질성, 환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32) “[해준] 두부 열상이 직접 사인이었고 …… 머리통이 깨지신 게, 돌아가신 이유라는 겁니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8-19쪽.

수 있는 것이다. 매우 현실적인 동시에 환상적인 『산해경』식 자백인 셈이다.

이해동 해준은 이해동 할머니의 핸드폰에서 살해의 흔적을 찾아낸다. 그러나 해준은 재수사를 예고하지 않고, 서래에게 살해의 유력 증거품을 바다에, 깊은 데 빠뜨려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 후배 형사 수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인 사건을 자살로 종결해 버린, 자부심으로 만들어진 품위 있는 형사 해준은 ‘붕괴’ 된다.

[서래]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

[해준] 내가 당신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어요?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어요?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어요? (……)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

서래의 무너지고 깨어진 표정에서 페이드 아웃.³³⁾

‘무너지고 깨어짐’의 의미를 가진 붕괴, 해준의 입을 통해 발화된 ‘붕괴’는 서래의 무너지고 깨어진 표정으로 이어진다. 이때 사랑과 죽음을 노래하는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교향곡 5번 4악장이 배경음악으로 쓰여, 사랑의 경로를 암시한다.³⁴⁾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간 후, 이들의 붕괴된 마음과 표정을 배경으로 「산경」은 마무리된다.

3. 해경(海經)

이 영화는 한 여자가 바다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 83번째 씬, 이 영화의 「해경(海經)」은 이렇게 시작한다.

안개 낀 바다, 화면에 ‘海’와 ‘바다’가 동시에 필기체로 적힌다.³⁵⁾

33)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09-110쪽.

34) 성창규,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대립적 이분법과 아이러니와 번역」, 『동서비교문학저널』 63, 2023, 212쪽.

『산해경』 「해경」이 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땅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³⁶⁾ <헤어질 결심>의 후반부도 바다를 낀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산해경』 「해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신령이 낳은 모든 사물들은 저마다 모습을 달리한다. 어떤 것은 요절하고, 어떤 것은 오래 사는데, 오직 성인(聖人)만이 이 도(道)에 통한다. 해외(海外)는 서남쪽 끝에서 동남쪽 끝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곁흉국(結胸國)이 그 서남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슴이 튀어나와 있다.”(『산해경』 「해외남경」)³⁷⁾

「해경(海經)」의 서두에서는 각 생명이 지닌 짧고 긴 죽음에 대해 설명한다. 「해경」의 기술 방식은 「산경」과 대비되는데, 「산경」의 특징인 지리감을 탈피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한 숫자와 거리를 표기하는 단위인 「리(里)」로 시작하는 표현 방식을 벗어나 있다. 「산경」이 산(山)에서 산(山)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해경」은 나라(國)와 사람, 신(神)들을 설명하는 서술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구체적 숫자와 단위는 사라지고 방향만 표기된다. 숫자를 동반한 지리적 거리가 생략된 서술은 나라들 사이를 더욱 가깝고 밀접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헤어질 결심>의 진행 방식과도 유사하다. 영화의 후반부의 배경인 이포(「해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와 죽음이 직접적으로 교차하고 밀착되며 연결된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열린 안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83번째 씬도 ‘안개 낀 바다’로 시작한다. 배경은 부산에서 이포로 바뀌어 있고, 해준과 서래는 각각 다른 이유로 이포로 옮겨온다. 아내가 있는 이포로 전근을 온 해준은, 그곳에서 서래를 우연히 만난다. 서래는 그 사이 임호신과 재혼하여 이포에 머무르고 있다. 해준은 이포를 살인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서래의 남편 임호신이고, 서래는 최초의 발견자로 보고된다. 해준은 서래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35)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10쪽.

36) 서경호, 『山海經研究』, 167쪽.

37) “神靈所生，其物異形，或夭或壽，唯聖人能通其道。海外自西南陬，至東南陬者。結胸國在其西南，其為人結胸。”(『山海經』 「海外南經」)

[해준] 이럴려구 이포에 왔어요?
여기서 죽이면 내가 또 눈감아 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서래] 내가 그렇게 나뻐니까?
[해준] 송서래 씨 잘 들으세요.
이번 알리바이는요, 차돌처럼 단단해야 할 겁니다.

해준의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가 확인된 서래는 풀려난다. 서래가 그토록 자신있어 했던 것은, 그녀가 남편을 직접 죽인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려난 서래는 이포를 찾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중국어로 원자력 발전소를 설명하는데, 이때 서래는 원자력 발전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적색비상>을 설명하면서,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서래]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특징으로 하는 건축인데요,
저 높고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낮고 늘 변화하는 바다와,
그리고 덧없는 안개와 또다시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적색비상> 역시, 극히 위험한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와 거기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

서래가 그녀의 현실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인 동시에 때로는 은유적이다. 서래가 말한 ‘저 높고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해준을, ‘낮고 늘 변화하는 바다’는 그녀 자신을 의미한다. ‘극히 위험한’, ‘거기서 피어난 사랑’, ‘대조’, ‘대비’ 등의 용어는 한 문장 안에 있지만, 그 단어들은 ‘대비’ 되거나 ‘대조’ 될 뿐 끝내 섞이지 못한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호미산에 오른 서래를 찾아, 해준도 그곳에 이른다. 서래는 그녀가 절망할 때마다 “한국에 가면 네 산이 있다”고 말해주는 엄마의 말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해준과 같은 “바람직한 남자들”은 그녀와 결혼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왔고, 바람직한 남자와 “얼굴 보고 한 마디라도 하려면 살인 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했다고 해준에게 말한다. 서래 엄마가 서래에게 ‘네 산’ 이라고 했던 호미산에서, 서래는 해준에게 이해동 할머니의 전화를 건넨다. 수사를 망치고 자부심을 잃었던 해준에게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³⁸⁾

해준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된다. 서래가 사철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철성이 임호신을 살해한 경위를 알아내지만, 끝내 서래가 임호신의 전화기를 버려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해준이 서래의 ‘불필요한 행동’, 즉 남편의 전화기를 버린 이유를 묻자 그녀는 설명을 생략한 채, 해준이 그녀에게 임해동 할머니의 전화기를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녹음파일이 든 임호신의 전화기를 버리라고 반복한다.

[서래] 해준 씨……. 임호신 전화, 그거 버려요……. 깊은 바다에 버려요.

임해동 할머니의 전화기와 임호신의 전화기에는 서로를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즉 그들의 비밀이 녹음되어 있다.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두 사람의 행위는 사랑의 언어로 독해된다.

「산경」이 끝나는 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서래는 해준의 말을 사랑으로 번역하고, 그 순간 서래만의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경전의 첫 장이 시작된다.

[서래]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해준의 사랑이 끝나는 자리였고, 서래의 사랑이 시작될 자리였다. 녹음된 해준의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아서 듣고 또 들었던 서래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라는 해준의 말을 실행한다. 사랑의 증거인 폰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바다에 던지라는 해준의 말을 기억하고 있던 서래는 스스로 사랑의 증거가 되기로 ‘결심’ 한다.

서래는 스스로 바다의 모래를 파서 들어가는데, 양동이로 모래를 퍼내고 사랑의 증거물을 파묻는 행위는 영화의 서두에서 반복되었던 장면이다.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에 표시하기 위해 길고양이가 까마귀를 잡아오자, 서래는

38)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미는 서래. 헤르 랜턴으로 비춰 준다. 임해동 할머니의 전화다. 해준, 기겁해 돌아본다.
[해준]버리라고 했잖아요!
[서래]이걸로 재수사해요.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67쪽.

까마귀의 사체를 놀이터 모래 속에 깊이 묻는다. 까마귀는 고양이가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였는데, 이는 서래가 까마귀를 모래에 묻자 고양이가 서래에게 와서 몸을 비비는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까마귀가 묻힌 자리에는 까마귀의 깃털만 남겨진다. 사랑의 증거인 까마귀 사체는 모래 아래로 완전히 감추어지지만, 남겨진 깃털은 사랑의 흔적을 보여준다. 까마귀 깃털은 서래의 집 거실 화병에도, 39) 해준의 사무실 책상 필통에도 꽂혀 있던 것이다. 해준은 이포에 가면서도 까마귀 깃털을 가져간다.

스스로 사랑의 증거가 되기로 결심한 서래는 모래사장 위에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들어가 남아 있던 펜타닐을 삼키고, 썰물은 소용돌이를 치며 모래를 밀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만든다. 물을 지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서래의 모습은 사랑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하데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간 에우리디케(Eurydice)를, 그 위에서 서래를 애타게 찾는 해준은 오르페우스(Orpheus)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40) 이들의 사랑은 원초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갖는다.

과도가 밀려와 구덩이를 쓸고 지나간다. 양동이로 퍼 올려 쌓아 놓은 모래 더미를 끌고 가면서 구덩이를 덮는다. 구덩이에서의 들어찬 모래 위에서 바닷물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

서래 있던 자리는 이제 평평해졌다. 구덩이는 흔적도 없다. (……)

(서래 위에) 우두커니 선 해준, 운동화가 물에 다 잠겼다. 41) (밀줄, 인용자 강조, 이하 같음)

해준은 서래를 덮어버린 그 모래 위에 서서 서래를 찾는다. 그 지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면서도 ‘아무도 못 찾을’ 장소가 된다. 서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과 물과 하나가 된다. “사랑은, 그 외 모든 것의 포기니라”를 스스로 결행했던

39) “화병에 꽂 대신 꽃힌 까치와 까마귀의 깃털 서너 개도.”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66쪽.

40)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 박찬욱 인터뷰] “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영화 이야기의 영역에서 뭔가 신화, 이런 원초적인 영역으로 한발짝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준이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오르페우스 있잖아요. 지옥과 이승 사이에서 아내를 찾아 헤매는 남자,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해준이지만 오르페우스인 거고 …… 다른 영화들도 다 어느 정도는 다 메타포고, 그런데 그 영화들은 신화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검색일: 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r3XpwacurLQ>)

41)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82쪽.

서래가 묻힌 곳, 땅이기도 하면서 바다이기도 한 뒤섞임의 장소는 신화적 공간으로 변모한다. 땅인 동시에 바다이고, 죽음의 장소이자 서래의 영원한 사랑이 실현된 생명의 공간이다. 이때의 물은 파괴적 물이자 생명의 물이고, 순수한 물이자 난폭한 물이라는 신화적인 상징성을 획득한다.⁴²⁾

또한 서래의 죽음은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끝내 새가 된 『산해경』 속의 여신(女神) 여왜(女娃)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⁴³⁾ 동해에서 노닐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 결국 돌아오지 못한 여왜(女娃)는 죽은 후에 정위(精衛)라는 새가 변했고, 오늘까지도 돌을 물어 나르며 바다를 메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용맹한” 새인 동시에 여신이다.⁴⁴⁾ 바다에 빠져 죽은 후 새가 된 여신, 사랑의 증표로서 죽은 채 모래에 묻힌 까마귀, 스스로 모래를 파고 들어간 서래 사이에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죽음의 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과 연결성, 영원성을 갖는다.

죽음을 경유한 연결성은 서래의 죽음에서도 반복된다. 서래는 스스로 사랑의 증표가 되어 모래에 묻히는데, 서래의 죽음은 기이하게도 산과 바다가 분리된 곳이 아니라, 산과 바다가 합쳐진 듯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5·6>)

해준은 서래가 묻힌 ‘그’ 모래 위에서 서래를 찾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랑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소유한 사랑, 영원히 상실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섞임의 공간이고, 영원의 공간이며, 신화적 장소가 된다. 사랑의 증거였던 전화기,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했던 ‘저 폰은 바

42) 가스통 비슐라르는 물이라는 질료에 대해 “맑은 물, 봄의 물, 흐르는 물, 깊은 물, 잠자는 물, 죽음 물, 모성적인 물, 여성적인 물, 순수성과 정화, 난폭한 물” 등으로 설명한다. 물은 부드러운 동시에 난폭하고, 봄과 같지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은 인간 사고가 하는 가장 큰 가치 부여 중 하나, 즉 순수성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대상이다. …… 난폭한 물은 곧 인간이 폭력을 가하는 물이 된다. …… 인간과 물질 사이에 적의에 찬 결투가 시작된다. 물은 원한을 품고 성(性)을 비꾼다. 약한 존재가 됨으로써 남성이 된다.” 가스통 비슐라르, 김병욱 옮김, 『물과 꿈』, 이학사, 2020, 29-30쪽.

43) “다시 북쪽으로 200리를 가면 발구산이다. 산에는 산뿔나무가 많이 난다. 이곳의 어떤 새는 까마귀 같이 생겼는데, 머리에 무늬가 있고 흰 발에 붉은 발을 가졌다. 정위(精衛)라고 부르는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같다. 이 새는 염제(炎帝)의 어린 딸로, 여왜(女娃)라고 불린다. 여왜는 동해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는데, 정위가 되어 늘 서쪽 산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웠다.” (『산해경(山海經)』 「북산경(北山經)」)

44) “용맹한 새의 이야기는 정위전해(精衛填海)’라는 성어(成語)로 남아 있다.
44) “[무녀] (……) 죽음은 용맹한 행동입니다.
[류선생] (……) 진정 용맹한 행동은 사랑이야.” 정서경·박찬옥, 『헤어질 결심 각본』, 52-53쪽. ‘용맹함’은 죽음과 사랑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이다.

다에 던져요’는 서래의 결행으로 영원한 현재로 남게 된다. 이 영화는 서로에게 가는 길을 이끄는 ‘지리서’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비슷하지만 누구와도 다른 신화적 사랑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속성을 드러낸다.

<그림 5>



<그림 6>



서래와 해준의 사랑은 단절되는 것 같으면서도 부단히 이어진다. 해준이 붕괴되면서 서래를 떠나는 순간 서래의 사랑이 시작되고, 서래가 물속으로 사라진 이후 해준의 사랑과 슬픔은 “파도처럼 덮친다”.⁴⁵⁾

<헤어질 결심>은 절망과 파국의 서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구원의 서사가 된다.⁴⁶⁾ 이들의 사랑은 서로를 찾아가는 길을 그려내는 동시에, 그들만의 사랑의 지도를 완성한다. 서래와 해준의 서사는 영원한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 경전(經典)이라 할 만하다. 끊임없이 경전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 덧붙였던 서래는 이로써 사랑의 경전을 완성한다.

4. 결론을 대신하며: 반복과 변주를 통한 경전의 재해석

이 영화에는 반복되는 음악과 노래가 있고, 서래는 드라마, 영화, 대사 등을 부단히 반복한다. 이처럼 ‘반복’하는 행위는 경전이 형성되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원래의 것들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무수히 다

45) “[해준]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몰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29쪽.

46) “이 영화는 서래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만 결코 절망적인 서사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서래의 죽음에 해준의 사랑이 시작되는 토대가 된다. 해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 사랑의 파국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토대가 된다.” 한귀은, <헤어질 결심>에 내재된 사랑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28(3), 2022, 357쪽.

양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영화의 음악 가운데 반복되는 음악이 있는데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교향곡과 <안개>가 그것이다. 서래의 남편인 기도수는 산행을 하며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듣고, 서래의 범행을 알아차린 해준이 서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음악이 배경곡으로 삽입된다. 이해동 할머니는 서래가 저장한 노래 <안개>를 듣고, 해준이 사라진 서래를 찾을 때에도 이 노래가 반복된다. 두 곡은 기존 음악(pre-existing)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곡과는 달리 반복되어 쓰였다는 점에서, 차별적 위상을 갖는다.⁴⁷⁾ 장르는 다르지만, 두 곡에는 일종의 경전과 같은 역할이 부여된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은 그가 “표제성이 없는 순수 기악적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시작한 작품으로, 말러 음악 어법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4악장 아다지에도(Adagietto)는 그의 아내가 될 알마(Alma Maria Mahler)를 만난 후 쓰여 3장과 5장 사이에 끼워진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말러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수정을 계속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작품이고,⁴⁸⁾ 알마에 대한 말러의 ‘사랑의 선언’이기도 하며, 죽음에 대한 슬픔과 무력감,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표현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는 세 번 쓰였는데, 죽음, 마지막, 기쁨, 행복이 교차하는 독특한 분위기의 음악은 해준과 서래의 사랑으로 재해석된다.⁴⁹⁾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가 노래 <안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⁵⁰⁾ 실제로 이 노래는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개>는 서래가 즐기던 노

47) 왕혜은·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4), 2023, 723쪽.

48) 라상율, 「말러의 <교향곡 제 5번> 4악장 분석을 통한 확대된 스트링 사운드 구현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9-20쪽.

49) 왕혜은·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 『문화와융합』 45(4), 2023, 727-733쪽.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의 역사적 배경이 영화 속 해준의 상황과 서래와의 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두 번째 장면에서는 남자 주인공 해준과 여자 주인공 서래의 아련한 감정뿐만 아니라 해준의 행복하면서도 우울한 복잡한 심경과 비극적 결말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4악장이 사용된 장면에서 감독은 행복한 감정만 가진 악절을 선택하였는데, 이것 역시 영화의 서사를 일관되게 이어주는 한편, 문화 음악적 코드로써 해준과 서래의 관계를 말러와 알마의 관계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왕혜은·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 733쪽.

50) [인터뷰] 「DECISION TO LEAVE Q&A with Park Chan-wook | TIFF2022」 (검색일: 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pxrxg9TS-yM>

래이고, 월요일(이해동) 할머니의 폰에 저장된 음악이기도 하다.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노래로도 반복되어 등장한다. 그들이 사랑을 완성하는 장소인 이포는 안개로 뒤덮인 장소인데,⁵¹⁾ 안개는 실체가 분명하면서도 잡히지 않아 모호하며 불안감을 증폭하는 요소로 사용된다.⁵²⁾ 희미함과 모호함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나 홀로 걸어가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걸어가 다오 (……)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정훈희, <안개>)

말리의 교향곡과 <안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랑과 죽음, 행복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주제를 담고 있는 말리의 교향곡, 뿌연고 흐릿하며 불확실하여 불안감을 드러내지만, 그 순간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더 잘 보려는 마음을 전달하는 노래 <안개>는 그들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변주곡인 셈이다.⁵³⁾

51) “[정인] 서생님, 이포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긴 아침에 해 없어요, 안개 때문에.”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23쪽.

52) 이 영화에서 안개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은 매우 많고,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난다. “일출 직전의 파르스름한 대기와 열은 안개.”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7쪽. “운전하는 해준, 화가 났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해서, 안개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없어서. 글러브박스에서 전기면도기를 꺼내는 해준, 턱을 민다. 정훈희 노래 「안개」가 흐르기 시작한다. 속도를 높이는 해준, 안 보이던 앞차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바람에 급감속. 차선 옮겨 추월. 또 앞차 바로 뒤에서 급감속. 방파제에 부딪히는 거친 파도. 안개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을 발하는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의 묵직하고 불길한 저음이 노래를 삼킨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62-63쪽.

“안개 낀 바다.”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10쪽. 등

53) [인터뷰] “곡이 발표된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가요 중 하나가 ‘안개’입니다. …… 가사 중에서도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라는 가사가 특히 더 제 심금을 울렸

영화의 마지막은 “서래 위에 서서” 서래의 이름을 부르는 해준의 외침으로 끝나는데, ‘저무는 해’, ‘내려앉는 안개’, 그 순간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노래 <안개>는 끝과 시작을 드러내는 동시에, 죽음과 사랑을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7>

[해준] 서래 씨!

해 지는 바다에 내려앉는 안개가 멀어지는 해준의 뒷모습을 감싼다. 트윈폴리오의 「안개」 시작.⁵⁴⁾

<그림 7>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래가 대사를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보거나 듣는 것들이다. 서래는 <흰 꽃>과 <적색비상>을 반복해서 보고, 해준의 녹음을 반복해서 듣는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외우는 것은 경전을 익히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췌.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시야가 흐릿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이지 않는 뭔가를 열심히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느껴요. 감흥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말하자면 영화에서 안개도 나오고, 녹색인지 파랑인지 그런 색깔도 나와요.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불확실한 상태나 사물이나 관계, 감정 같은 게 다 노래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욱, ‘헤어질 결심’, 기교 없이 깊은 사랑 풀어내길 원했다」(류지윤, 「데일리안」(2022/7/16) [검색일: 2024/10/16] <https://v.daum.net/v/20220716100216503>

54)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83쪽.

TV화면-사극 <흰 꽃>. 석양빛에 물든 강변. 류선생의 품에 안겨 죽어 가면서도 기백이 당당한 무녀, 반면 류선생은 눈물이 줄줄.

[무녀] 죽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죽음은 용맹한 행동입니다.

[류선생] 아니다, 소화가야……. 아니야……. 진정 용맹한 행동은 사랑이야.

(……) 조용히 중얼거리며 대사를 따라한다.

[류선생/서래] 사랑은 …… 그 외 다른 모든 것의 포기니라.⁵⁵⁾ (밑줄, 인용자 강조, 이하 동일)

TV드라마 <적색비상>을 본다. …… 젊은 여성 지민이 쓰러져 있다, 소방관 고빈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지민을 안는다. 지민, 눈 뜨며 -

[지민] 바보같이 …… 오지 말랬잖아요 …….

오면 죽는다고, 오지 말랬잖아요 …….

방독면을 씌워 주는 고빈을 보면서 서래, 동시에 중얼거리다.

[고빈/서래] 당신을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⁵⁶⁾

재빨리 듣기 싫은 부분 건너뛰고 듣고 싶은 부분으로 바로 간다. 고개 폭 속이고 눈은 감고 전화기는 귀에 바짝 대고 듣는다.

[해준](소리) ……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눈 뜨는 서래, 반복 재생. 해준의 “저 폰은……”을 다시 들으면서-

[해준/서래] ……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

서래, 허공의 높은 데를 보며 미소 짓는다.⁵⁷⁾

죽음은 포기가 아니고, 사랑은 진정 용맹한 행동이며, 그 외 모든 것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류선생의 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죽음뿐이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주인공들의 대사, 서래의 살해 증거를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하라는 해준의 말은 서래의 목소리와 ‘겹쳐서’ 발화된다. 기존의 것을 외우고, 그것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가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경전이 전해질 수 있었던 방식으로서, 서래도 그 방식을 반복한다. 『산해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이며 전해진 것처럼, 서래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외우고, 자

55)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52-53쪽.

56)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18-119쪽.

57)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180-181쪽.

신의 이야기를 덧대어 자신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서래가 사랑이라는 자신만의 경전을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감독이 그려내고자 했던 “고전적이고 우아한 사랑”⁵⁸⁾이라는 수식어와 매우 잘 어울린다.

이 영화에서 『산해경』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산해경』의 형식을 구현하고 있다. 『산해경』 「해경」이 바다 바깥쪽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서로에게 있어 바깥쪽에 있는 해준과 중국 여성 서래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 영화에 쓰인 음악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과 가요 〈안개〉, 서래가 보여주는 특유의 화법과 ‘반복적, 중첩적’ 말하기 방식, 이미지 등은 경전(經典)이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전의 변주를 통해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산해경』의 관점으로 서래와 해준의 이야기를 보자면, 안개에 갇힌 채 서로를 찾아 길을 만든 사랑의 지리서(地理書)이며, 신화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사랑을 완성한 사랑의 경전이다.

58) [인터뷰] “고전적이고 우아한,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찬욱, ‘헤어질 결심’, 기교 없이 깊은 사랑 끌어내길 원했다” (류지운, 「데일리안」 (2022/7/16) [검색일: 2024/10/16] <https://v.daum.net/v/20220716100216503>

참고문헌

[저서]

-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각본』, 을유문화사, 서울, 2022.
李豐楙, 『山海經-神話의故郷』, 時報文化, 臺北, 2012.
정재서 역주, 『山海經』, 민음사, 서울, 1999.
마창의(馬昌儀) 저, 조현주 옮김, 『古本山海經圖說』(上·下), 다른생각, 서울, 2013.
서경호, 『山海經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7.
가스통 비술라르 저, 김병욱 옮김, 『물과 꿈』, 이학사, 서울, 2020.

[논문]

- 리상율, 「말리의 <교향곡 제 5번> 4악장 분석을 통한 확대된 스트링 사운드 구현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민경욱, 「중화권 영화에 대한 내셔널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 본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 『중어중문학』 93, 한국중어중문학회, 2023.
박진,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원형적 상징성과 그 의미-용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한국언어문화』 80, 한국언어문화학회, 2023.
성창규,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대립적 이분법과 아이러니와 번역」, 『동서비교문학저널』 63,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3.
오연, 「헤어질 결심으로 환대를 해체하기」, 『영화연구』 96, 한국영화학회, 2023.
왕혜은·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이다운, 「<헤어질 결심>의 다층성 연구 - 영화적 장치를 통한 의미의 보류와 생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91, 중앙어문학회, 2022.
이미옥·안상혁,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시각적 표상 연구 -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1,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22.
이석구, 「산과 바다를 걷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 『중국소설논총』 69, 한국중국소설학회, 2023.

- 이종현, 「영화 <헤어질 결심>, 실존을 향한 죽음의 트랜스아이덴티티」, 『영상문화』 41, 한국영상문화학회, 2022.
- 이희승, 「영화 <헤어질 결심>의 서사구조 분석: 진실한 사랑 혹은 사랑의 진실」, 『예술교육연구』 22(2), 한국예술교육학회, 2024.
- 진성희, 「한국 영화의 중국인 여성-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성 재현과 윤리」, 『중국어문논역총간』 52, 중국어문논역학회, 2023.
- 한귀은, 「<헤어질 결심>에 내재된 사랑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28(3), 대중서사학회, 2022.
- 한영현, 「시선과 언어로 매개되는 로맨스의 새로운 상상력: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24(3), 문학과영상학회, 2023.
- 홍상우·문준일, 「러시아 형식주의와 영화 <헤어질 결심>」, 『세계문학비교연구』 84, 세계문학비교학회, 2023.
- Zhu Jing, 「Mountain and Sea: Gender Dilemma in Park Chan-wook's Decision to Leave」 (2022), 『아시아영화연구』 16(2), 영화연구소, 2023.

[인터넷 기사 및 영상 자료]

- [평론] 「모호하고 선명한 사랑의 지리, 헤어질 결심」(유강하, 『강원도민일보』(2023/01/27) [검색일: 2024/10/16]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232>)
- [인터뷰] 「박찬욱, ‘헤어질 결심’, 기교 없이 깊은 사랑 끌어내길 원했다」(류지운, 『데일리안』(2022/7/16) [검색일: 2024/10/16]
(<https://v.daum.net/v/20220716100216503>)
- [인터뷰] 「월간 율터뷰, 영화 감독 박찬욱,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검색일: 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zoGEI8fpSnQ>
- [인터뷰] 「『헤어질 결심 각본』 정서경 박찬욱 인터뷰」[검색일: 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r3XpwacurLQ>)
- [인터뷰] 「DECISION TO LEAVE Q&A with Park Chan-wook | TIFF2022」 [검색일: 2024/10/16] <https://www.youtube.com/watch?v=pxrxg9TS-yM>
- [인터뷰] 「‘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 “‘헤어질 결심’은 100% 관객에게 가닿았다.」 『씨네21』(2022/7/7). [검색일: 2024/11/29]
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0489

Abstract

A study of the film “Decision to Leave”(2022) rea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hanhaijing*(山海經)

Yu, Ka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rk Chan-wook’s film “Decision to Leave”(2022) according to the reading of the ancient Chinese scripture *Shanhaijing*(山海經,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The reason I focus on “Shanhaijing” in this study is not only because the main character, Seo-rae, is Chinese, but also because the film borrows from its organization and narrative style.

This study analyzes the film “Decision to Leave” by dividing it into “Shanjing(山經, *Classic of Mountains*)” and “Haijing(海經, *Classic of Seas*)” to examine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mythological elements of the film.

Although *Shanhaijing*(山海經) seems to play a very small role in this film, the overall organization of the film takes the form of *Shanhaijing*. Just as the “Haijing(海經, *Classic of Seas*)” recorded the stories of “others” outside the sea, this movie focuses on the stories of Haijun and the Chinese woman Seo-rae. The music, diction and other elements of this film show how the scriptures were formed and enrich their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hanhaijing*, the story of Seo-rae and Hae-jun is a love geography, a love scripture in which they found each other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fog, consummating their love in a mythical way.

【Key words】 *Shanhaijing*(山海經,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Decision to Leave*(2022), *Shanjing*(山經, *Classic of Mountains*), *Haijing*(海經, *Classic of Seas*), Canon, Geographical features, Mythological elements

* Department of Humanities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논문접수일: 2024. 11. 04. 논문심사기간: 2024. 11. 12. ~11. 27. 게재확정일: 2024. 11. 27.

